

강조사(intensifieur) 파생어에 대한 소고

임재호*

I. 서론

언어에는 강조 표현들이 있다. 그것들을 통칭하여 ‘강조사(intensifieur)’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강조사들을 사용하며 강조(intensification) 행위를 한다. 프랑스어로 intensifier는 19세기 용어인 반면 *emphase*는 16세기 용어이다. 두 용어는 유사어이지만 전자는 20세기에 언어학이 선택한 용어인 반면, 후자는 Riegel, Pellat, Rioul(1994, 667)이 지적하듯 수사학에서 빌린 용어이다.

대표적 강조사로는 강조 부사가 있다. 예를 들어, *Il travaille beaucoup*에서 부사 *beaucoup*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강조사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휘적(lexical) 강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stress)라는 운소(prosodème)는 운소론적 강조사이다. 영어와 같은 언어는 스트레스를 사용하여 문장 속 특정 단어의 의미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I gave him a car*라는

*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문장에서 스트레스는 I, gave, him, a, car 모두에 붙을 수 있고 어떤 어휘에 붙느냐에 따라 강조되는 의미가 달라져 문장 전체의 의미가 상이해진다. 통사적 강조 방식도 있다. 아래 예문들에서와 같이 초점화(focalisation), 외치(extraposition), 주제화(topicalisation), 전위(dislocation)를 통해 특정 요소를 통사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다.

- C'est Claire qui aime le chocolat. (Riegel, Pellat, Rioul(1994, 725))
- Pierre a ouvert avec sa clé la porte de l'appartement à côté de chez lui. (Jones(1996, 31))
- A son fils, Pierre a donné une voiture. (Jones(1996, 33))
- Ce livre, je l'ai lu. (Jones(1996, 34))

형태론적 강조사들도 존재한다. 형태론적 강조사란 강조 기능을 하는 형태소들을 말한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강조사가 바로 형태론적 강조사이다(이하 ‘강조사’로 약칭).

강조사는 기본적으로 두 방향으로 강조한다. 하나는 플러스 방향,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전자를 ‘플러스 강조사’, 후자를 ‘마이너스 강조사’라 부르고자 한다.¹⁾ 흔히 사용하는 용어 지대사(指大詞 morphème augmentatif)는 전자에, 지소사(指小詞 morphème diminutif)는 후자에 상응할 것이다. 플러스 강조사는 ‘어떤 요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강조하는 형태소’이다. 반대로 마이너스 강조사는 ‘어떤 요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강조하는 형태소’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존재하는 플러스 강조사와 마이너스 강조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2009년 Fradin, Kerleroux, Plénat가 편집한 논문집 『Aperçus de morphologie du français』에 실린 Fradin, Montermini, Plénat가 쓴 논문 “Morphologie grammaticale et extragrammaticale”과 Fradin,

1) 현대언어학이 추구하는 과학성에는 핵심적으로 수학적화(mathématisation)가 있다. 수학적 문자 +, -는 현대언어학의 메타언어(설명 언어)로 적절하다.

Montermini가 쓴 논문 “La morphologie évaluative”에 제시된 형태론들도 소개하고 사용할 것이다.

II. 본론

1. 기초적 분석

‘왕뚜껑’이란 어휘가 있다. ‘왕’이라는 형태소와 ‘뚜껑’이라는 형태소를 바탕으로 도출(dérivation)된 파생어이다. 네이버 사전의 내용을 재정리하면, ‘왕’은 접두사이고 그것의 의미는 ‘① 큰 종류 ② 형태가 매우 크거나 굵은 ③ 정도가 매우 심한 ④ 할아버지뻘 되는’이다. 이 네 가지 의미는 모두 플러스 방향이라 할 수 있으니 ‘왕’은 플러스 강조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역시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①의 예로는 ‘왕개미’가 있다. ②의 예로는 ‘왕겨’가 있다. ③의 예로는 ‘왕가뭍’이 있다. ④의 예로는 ‘왕고모’가 있다. 이와 같이 강조 파생어는 기존 어휘를 어간(radical)으로 사용하고 그 어간에 강조 접두사를 접목(affixation)하여 만들 수 있다. 강조 부사가 동사구 내부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강조 접두사는 강조사 파생어 내부에서 어간을 강조한다. 예의 강조사 파생어들의 강조사를 강조 형용사화하면, ‘큰 개미’, ‘큰 겨’, ‘큰 가뭍’, ‘큰 고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큰 개미’가 곧 ‘왕개미’는 아니다. ‘큰 겨’는 ‘왕겨’와 유사하다. ‘큰 가뭍’도 ‘왕가뭍’과 유사하다. ‘큰 고모’는 전혀 ‘왕고모’가 아니다. ‘왕고모’는 “아버지의 고모”를 의미한다. 이상의 대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플러스 강조사 ‘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분류 체계 속에서 플러스적인 종류를 말하는 ‘왕’, 다른 하나는 양적/질적 관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의미를 늘이는 ‘왕’. 전자의 경우는 강조 형용사로 대체가 불가능한데, 후자의 경우는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왕’은 한자어 ‘王’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

이어서 마이너스 강조사를 예로 들어보자. ‘쇠기러기’라는 어휘가 있다. 이 어휘 역시 ‘쇠’라는 강조 접두사와 ‘기러기’라는 어간을 바탕으로 파생되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쇠’는, “일부 동물 명사나 식물 명사 앞에 붙어, ‘작은’의 의미를 더하는 말”이다. 즉, 지소사이다. 그런데 ‘쇠기러기’의 ‘쇠’는 정확히 말하면, ‘왕개미’의 ‘왕’처럼, 종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쇠기러기는 단순히 ‘작은 기러기’가 아니다. ‘큰기러기’에 대응하는 말로서 크기가 작은 기러기 종류를 의미한다. 물론 ‘큰기러기’도 ‘큰 기러기’가 아니다. 마이너스 강조 접두사 ‘쇠’는 - 한자어 ‘小’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 플러스 강조 접두사 ‘왕’의 의미들 중 하나와 대립한다.

‘왕’과 ‘쇠’를 계속 대조해보자. 전자는 독립적으로도 사용된다. ex. 왕 부럽다. 그때 ‘왕’은 접두사가 아니라 부사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쇠’는 그런 독립적 사용이 불가능하다. ‘쇠’와 파생어가 되는 어간에는, 동물 명사이거나 식물 명사(ex. 쇠비름)이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이 있다. ‘왕’의 경우 제약이 다르다. ‘왕개미’에서 어간은 동물이고, ‘왕겨’에서 어간은 식물인데, ‘왕뚜껑’에서 어간은 사물이고, ‘왕고모’에서 어간은 사람이다. 나아가 ‘왕’은 신체 부위 어간에도 붙일 수 있고(ex. 왕눈), 음식물 어간에도 붙일 수 있으니(왕만두) 어간의 외연이 ‘쇠’의 경우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2. 강조사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강조사의 논리적 구조

우리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주요 선행연구인 Wolfgang U. Dressler와 Lavinia Merlini Barbaresi의 저서 『Morphopragmatics. Diminutives and Intensifiers in Italian, German, and Other Languages』(1994)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Dressler와 Barbaresi(1994, 416)의 언급들을 재정리한 데다가 우리의 인식을 첨가하여 말하면, 플러스 강조(저자들의 용어로는 intensification)란 양, 질, 구체성, 정확성 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정도(degré)를 전제하는 평가(évaluation)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강조사가 접목되는 어간은 정도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왕뚜껑’의 경우를 살펴보자. 어간 ‘뚜껑’은 정도가 있는 대상이다. 즉, 질의 관점에서, 큰 뚜껑, 작은 뚜껑 등 정도가 있다. 이어서 평가가 있다. ‘왕뚜껑’은 ‘뚜껑’이라는 평가 대상이 ‘크다’라는 평가 판단을 배경으로 갖는 어휘이다. ‘왕’은 그러니까 주어(sujet) ‘뚜껑’에 대해 사용된 술어(prédictat)라 할 수 있다. 뜻밖에 플러스 강조사와 어간의 접목에서 도출된 강조사 파생어의 파생 과정에는 술어 작용(prédication)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강조사가 들어있는 모든 파생어의 파생 과정에 술어작용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왕겨’의 경우 ‘겨가 크다’는 술어작용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고, ‘왕기름’, ‘왕눈’, ‘왕만두’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술어작용이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왕개미’나 ‘왕고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유사한 술어작용이 파생 과정에 개입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파생 과정에 술어작용이 개입하는 강조사를 ‘평가(évaluative) 강조사’, 개입하지 않는 강조사를 ‘비평가(non évaluatif) 강조사’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강조사의 논리적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돌멩이’의 경우 어간 ‘돌’과 강조 접미사 ‘멩이’ 사이에 술어작용이 존재한다. ‘송아지’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강조 접미사 ‘아지’가 “새끼”라는 의미를 갖는다.

Dressler와 Barbaresi(1994, 430-431)에 따르면 언어 일반에서는 마이너스 강조사가 플러스 강조사보다 발달해있다. 그들이 지적하고 있듯 심지어 유형론자 Greenberg(1966, 82)는 마이너스 강조사가 기본값이라고 일반화하고, 문체론자 Spitzer(1961, 93)는 마이너스 강조사 파생 규칙과 마이너스 강조사의 수가 플러스 강조사 파생 규칙과 플러스 강조사의 수보다 많다고 말한다.

2) 객관적 평가 강조사와 주관적 평가 강조사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어의 마이너스 평가 강조사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의 마이너스 평가 강조사보다 덜 발달했다. 프랑스어의 마이너스 평가 강조

사는 *et/ette*가 유일한데, 그 형태소는 생산적(*fécond*)이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어의 마이너스 평가 강조사의 평가도 단순히 크기(*taille*)에 대한 평가, 즉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호불호와 같은 주관적 평가인 경우가 있어서 해당 강조사를 포함하는 파생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²⁾, *championnet*, *chroniquette*, *partitionnette*, *réformette*, *religionette*는 “작은 승자”, “작은 기사”, “작은 악보”, “작은 개혁”, “작은 종교”의 의미를 갖는데, 그때 “작은”은 대략 “볼 것 없는”의 부정적 평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runette*, *clochette*, *jardinet*, *jupette*, *maisonnette*는 “작은 갈색 머리 소녀”, “작은 종”, “작은 정원”, “작은 치마”, “작은 집”의 의미를 갖는데, 그때 “작은”은 대략 “양증맞은”의 긍정적 평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평가가 폄훼하는(*péjoratif*) 경우라면 후자의 평가는 사랑스러워히(*hypocoristique*)거나 호의적(*mélioratif*)인 경우이다. 한마디로 애칭들이다. 비유적 표현인 *brebiette*(“작고 양 같은 사람”), *nymphette*(“작고 어린 소녀”)도 애칭의 경우에 속한다. 이상의 예들은 모두 명사 어간에 주관적 평가 강조사가 접목되어 도출된 경우로 형태론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재현 표상할 수 있다. [_N *dérivé* [_N *radical*] [*et/ette*]].³⁾ 이러한 명사적 어간 파생어와 달리 형태론적 구조 [_A *dérivé* [_A *radical*] [*et/ette*]]를 갖는 형용사적 어간 파생어들도 존재하는데, *aigret*, *pauvret* 등이 예이다. *Aigret*가 “신맛을 띠는”의 의미를 갖는 객관적 평가 강조사 파생어라면, *pauvret*는 주로 아이에 대해 사용하는 “가여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주관적 평가 강조사 파생어이다.

3. 형태론에 대한 관점들

지금까지 논했듯, 형태론의 대상인 강조사는 언어 일반에 존재하고 있으

2) Le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 참조.

3) 고대 그리스어 *mimesis*에 해당하는 *représentation*은 기본적으로 “재현”이다. 재현 때 반드시 표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현 표상’으로 번역하였다.

며 한국어와 프랑스어에도 존재하고 있다. 언어들에 존재하는 강조사의 양상이 서로 상이함을 유형론적 연구들이 보고한다. 한국어와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강조사의 양상도 서로 다를 것이라 예상한다. 강조사는 플러스 강조사와 마이너스 강조사로 나눌 수 있고, 평가 강조사와 비평가(non évaluatif) 강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평가 강조사가 플러스 평가 강조사보다 발달했다. 평가 강조사는 다시 객관적 평가 강조사와 주관적 평가 강조사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평가 강조사에는 긍정적 평가 강조사와 부정적 평가 강조사가 있다. 전자는 애정을 드러내거나 호의적인 강조사이고 후자는 폄훼 강조사이다. 이와 같이 강조사는 분류와 하위 분류들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평가 강조사의 구조적 조건도 있다. 그것이 접목되는 어간이 정도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어간과 평가 강조사 간에 주술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간이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조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간에 대한 의미 제약도 달라진다.

이상과 같은 강조사에 대한 심화 논의는 형태론이라는 현대언어학의 이론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학이론이 그러하듯 형태론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강조사에 대한 논의를 어떤 형태론에서 하는지도 중요한 논제가 된다. 우리는 ‘문법 내 형태론(morphologie grammaticale)’, ‘문법 외 형태론(morphologie extra-grammaticale)’, ‘평가적 형태론(morphologie évaluative)’이라는 하위 형태론들을 소개하고 강조사 파생어들이 어떤 형태론의 어휘들인지 밝히고 해당 형태론 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문법 내 형태론

Fradin, Montermini, Plénat(2009) 역시 형태론을 문법 내 형태론과 문법 외 형태론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특정 학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22쪽에서 Carbonell과 Hayes(1983, 124)의 언급을 인용하며 저자들도 말하듯, extragrammatical이라는 형용사는 1980년대 인간언어를 컴퓨터를 위한 언어로 바꾸는 과정(traitement automatique des langues)에서 사용되

던 용어로, 의미는 통하지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에 붙이곤 하던 메타언어이다. 주지하다시피 문법이란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언어 규칙들의 총체이다. 문법 내 형태론이란 문법적 형태론을 말하는바 문법 내 형태론적 규칙들을 통해 형성된 어휘들을 연구하는 형태론의 하위 분야이다. 예를 들어, *pomme de terre*(“감자”)는 합성 규칙들에 의해 형성(formation)된 문법적 어휘이다. 또 *lavage*(“빨래”)는 파생 규칙들에 의해 형성된 문법적 어휘이다. 이런 어휘들은 문법 내 형태론이 설명한다. 이 형태론과 다른 형태론으로 문법 외 형태론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법 밖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법 외 형태론은, 문법 내 형태론적 규칙이 사용되지 않고도 어휘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어휘들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려는 형태론의 하위 분야이다.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들에 대해 이상한 것(Aronoff(1976, 20)), 제작을 예측할 수 없는 것(다시 말해 과학적이지 않은 것)(Bauer(1983, 232-240)),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Haspelmath(2002, 25))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⁴⁾ 문법 외 형태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처음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로는 Zwicky와 Pullum(1987)을 들 수 있고 문법 외 형태론을 연구 프로그램으로 승격시킨 학자는 Dressler(2000)이다.⁵⁾

Frandin, Montermini, Plénat(2009, 24)가 밝히고 있듯, Zwicky와 Pullum(1987)이 문법 외 형태론(두 학자의 용어로는 ‘표현적 형태론(expressive morphology)’의 어휘로 제시한 예들에는 *everybloodybody*가 있다. 14세기 문헌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everybody*라는 어휘는 *every*와 *body*라는 두 어간을 합성 규칙에 의해 합성한 합성어이다. 즉, *everybody*는 문법 내 형태론이 설명할 수 있는 어휘이다. 반면에 *everybloodybody*는 합성된 *every*와 *body*를 해체하고 중간에 *bloody*(“피 흘리는”)라는 제3의 어간을 삽입하여 ‘창작한’ 신조어이다.⁶⁾ 이 어휘는 2015년 4월 1일자 *The Guardian*지 기사⁷⁾에 인용된 구

4) Frandin, Montermini, Plénat(2009, 23) 참조

5) *Ibid.*

6) 우리는 이 논문에서 문법 내 형태론에서 어휘가 제작되는 과정은 ‘형성(formation)’, 문법 외

어 문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But, in the end, this is bigger than Planet Clarkson. This is Planet **Everybloodybody**, including members of the traveller communities and our Burmese and Argentinian friends,” he winked.

Zwicky와 Pullum(1987)은 이와 같이 신조어를 창작하는 방식을 ‘표현적 요사화(expressive infixation)’라고 부른다. 이 표현적 요사화는 영어의 문법 내 형태론에 규칙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유하자면 규칙을 모르는 거리에서(on the street) 사용된 방식이다. 어휘 형성 규칙이라는 형식을 모르는 채 ‘의미를 기반으로’ 어휘를 만든 것이다.

Frandin, Montermini, Plénat(2009)의 언급들을 재정리하면, Dressler(2000)는 문법 외 형태론의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문법 외 형태론이 ‘문법 내 주변적(marginale) 형태론’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Dressler와 Kilani-Schoch(2005)에서는 문법 외 형태론도 중심부(partie prototypique)⁸⁾와 주변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태론은 네 가지 하위 형태론(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 문법 내 주변적 형태론, 문법 외 주변적 형태론, 문법 외 중심적 형태론)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이자 연구를 위한 이론적 작업가설이다. 이 이론적 작업가설에서 문법 내 주변적 형태론과 문법 외 주변적 형태론은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과 문법 외 중심적 형태론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문법 내 형태론의 어휘들과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들을 대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Frandin, Montermini, Plénat(2009)가 정리한 문법 내 형태론은 랑그(langue) 내 형태론적 장치를 통해 형성된 어휘들의 형태론이다. 즉, 언어공동체가 공

형태론에서 어휘가 제작되는 과정은 ‘창작(création)’으로 구별한다.

7) <Jeremy Clarkson joins Guardian drive for fossil fuel divestment>.

8) Prototypique는 ‘원형적’ 또는 ‘전형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중심적’으로 옮겼다.

유한 사회적 약속인 형태론적 시스템 속에서 형성된 어휘들의 형태론이다. 이 형태론의 어휘들을 형성하는 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형태와 의미가 동시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nation과 al이 어간과 접미사로서 접목되어 파생어 national이 될 때 형태만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파생된다. 2) 어휘 형성 과정이 규칙적이고 따라서 예측 가능하다. 한마디로 투명하다. 3) 어휘 형성에 사용되는 규칙은 개별 어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휘가 속한 범주 전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national의 형성 과정은 [A dérivé [N radical][Suffixe adjectival]이라는 범주들의 형태론적 구조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4) 어간의 의미에 어미의 의미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의미가 형성된다. 파생어 national의 의미는 어간 nation의 의미에 접미사 al의 의미가 추가되며 형성된 것이다. 5) 형성된 파생어가 다시 어간이 되어 새로운 파생 과정에 사용된다. 파생어 national이 어간으로서 nationalité가 형성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은 문법 내 형태론의 어휘들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규칙이며 그런 어휘들을 식별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된다. 그 다섯 가지 규칙에 따라 형성된 어휘들은 형성 과정이 투명한 만큼 문법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상기한 다섯 가지 규칙 중 하나라도 어휘가 지키지 않으면 문법 내 형태론의 어휘가 아닐 수 있다.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가 부정적(négatif)으로만 식별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해, 문법 내 형태론의 규칙 위반에 의해서만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를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positif)으로도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를 식별할 수 있는데, 어휘가 기계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창작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요소(예를 들어, 창작의 의도)가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창작 과정은 섬세하거나 섬세하지 못한 조작으로 판단된다. Frandrin, Montermini, Plénat(2009, 26)가 제시한 예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자. 먼저 섬세하지 못한 조작을 통해 창작된 어휘들이다.

- 1) comme d'hab
- 2) comme d'habitude

1)의 어휘가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2)의 어휘를 줄여 말한 것(약칭 *abréviation*)인데, 창작 과정이 섬세하지 못한 조작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부정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기준 1) 위반: 형태는 변했는데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기준 2) 위반: 조작이 규칙적이지 않아 예측 가능하지 않다. 기준 3) 위반: 조작이 범주 전체에 적용될 수 없다. 기준 4) 위반: 추가적 의미 형성과 무관하다. 기준 5) 위반: 창작된 신조어 *comme d'hab*을 어간으로 사용하는 다른 신조어가 형성된 바 없다. 이와 같이 *comme d'hab*은 부정적으로도 완전히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이다.

3) *mman*

4) *maman*

3)의 어휘는 4)의 어휘에서 *a*를 삭제함으로써 *m*이 중복(*réduplication*)된 경우이다. 3)의 어휘는 1)의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 내 형태론에 가깝지만 결국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이다. 역시 창작 과정이 섬세하지 못한 조작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기준 2), 3), 5)를 위반한다. 그러나 기준 1), 2)는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 형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태가 변하며 의미도 변했다. 추가되어 전체 의미를 변하게 한 의미는 ‘애정적 함축 (*connotation affective*)’이다.

5) *adulescent*

6) *adolescent*

7) *adulte*

5)의 어휘는 말놀이(*pun*)을 통해 만들어진 프랑스어이다.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청소년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6)의 어휘(“청소년”)에서 음소 /s/를 빼고 7)의 어휘(“성인”)에서 음소 /y/를 취하여 빠진 발음 위치에 대체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림으로써 성인의 세계는 ‘조금밖에’ 갖지

못한 청소년을 암시하는 효과를 낸다. 창작 과정이 섬세한 조작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문법 내 형태론의 어휘량은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량에 비해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많다. 그리고 문법 내 형태론의 어휘들은 특정 화계(niveau de langage)에 국한되지 않지만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들은 특정 화계에 국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verlan(반대어)이라 불리는 어휘들은 은어(langage secret)로서 특정 화계에서 사용된다. Verlan은 원래 의미가 “반대”이다. 그 자체도 l'envers(“반대”)의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위치를 바꿔 창작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민자 가족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어법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언어 창작은 사회적 저항의 표지이기도 하다. 백인 주류 사회의 여성 이름인 Mary가 뉴욕 할렘가 흑인 사회에서 남성 이름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요컨대 우리가 보기에 반대어에 속하는 어휘들에서는 ‘창작의 의도’가 엿보인다. Céfran은 français의 반대어로 verlan과 같은 창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어휘이다. 이와 같이 음절 수가 동일 경우에는 자리바꿈의 규칙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음절 수가 셋 이상일 때는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면 cigarette는 garesi가 될 수도 있고 retsiga가 될 수도 있다. Femme가 feumeu가 되는 과정은 복잡하다. Femme에서 약음 /ə/를 /œ/로 대체한 후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위치를 바꾸어 meuf를 만들고 다시 약음 /ə/를 /œ/로 대체한 후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위치를 바꾸어 feumeu를 만든다. 반대어에 속하는 어휘들도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들이다.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들이라고 해서 규칙화하려는 학문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어에 속하는 어휘들에 대한 규칙화도 Lefkowitz와 Weinberger(1991), Østby(2001), Plénat(1995) 등이 시도했다. Méla(1991)는 규칙화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경우이다.⁹⁾

반대어에 속하는 어휘들이 ‘음운론적 조작에 기반한’ 문법 외 형태론에서

9) Frandin, Montermini, Plénat(2009, 23) 참조

창작되었다면 mots-valises(혼성어)는 ‘의미 기반’ 문법 외 형태론의 어휘들이다. 둘 다 ‘형식 기반’ 형태론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 8) Hippidémie
- 9) Hippie
- 10) épidémie
- 11) métamourphose
- 12) métamorphose
- 13) amour

Frandin, Montermini, Plénat(2009, 33)에서도 8)과 11)의 어휘는 혼성어로 제시되었다. 우선 Hippidémie는 9)의 어휘와 10)의 어휘의 합성어가 아니다. 다시 말해 문법 내적으로 형성된 어휘가 아니다. Hippie의 의미 “히피”와 épidémie의 의미 “전염병”을 결합하여 “히피라는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려는 창작의 의도가 엿보인다. 문제는 의미의 결합과 병행되는 형태의 결합 과정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Métamourphose도 12)의 어휘와 13)의 어휘의 합성어가 아니다. Métamorphose의 의미 “변신”과 amour의 의미 “사랑”을 결합하여 “사랑의 변화”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려는 창작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 경우 의미의 결합과 병행되는 형태의 결합 과정은 더 예측할 수 없다. 12)의 어휘의 중간 부분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라틴어 amor를 발견하고 그것을 역시 “사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amour로 대체하여 신조어를 창작한 셈이다.

2) 평가적 형태론(morphologie évaluative)

이 논문의 논제인 강조사 파생어들은 어느 형태론의 어휘들일까? 우리가 보기에 강조사 파생어들은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이나 문법 외 중심적 형태론의 어휘들은 아니다.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의 어휘들은 예를 들면 일반적인 파생어와 합성어이다. 문법 외 중심적 형태론의 어휘들은 앞서 설명한 반대어

나 혼성어 등이다. 강조사 파생어는 문법 내 주변적 형태론이나 문법 외 주변적 형태론에 속한다고 예상된다. 거시적으로 말하면 일단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과 문법 외 중심적 형태론 사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는 주변적 형태론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주변적 형태론의 주변성을 구성하는 대표적 기준은 낮은 생산성(fécondité)이다. 강조사 파생어의 양은 일반적인 파생어와 합성어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우리는 강조사 파생어의 형태론을 Mel'čuk(1993-1997)과 Fradin과 Montermini(2009)가 말한 '평가적 형태론'으로 보고 그들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공유하고자 한다. Mel'čuk(1993-1997)은 언어 일반의 형태론인 자신의 일반 형태론(morphologie générale)에서 평가적 형태론의 질서와 형판(patron)을 제시하였다. 우선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1) 주관적 평가 2) 객관적 평가. 앞서 설명하였듯 주관적 평가란 대상에 대해 호불호와 같은 주관적 인정(approbation)을 나타내는 평가이다. 애정을 드러내거나 폄훼를 드러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객관적 평가란 대상에 대한 측정(mesure)을 나타내는 평가이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크기'가 문제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서로 배제하지 않고 두 평가가 중첩(cumul)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평가적 형태론에서 어휘가 구성될 때 사용되는 형판이다.¹⁰⁾

〈표 1〉¹¹⁾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크기가 크다는 평가	크기가 작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maximanteau ("대형 망토")	balisette ("소형 표시등")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bisounette (사랑스러운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	apartmentazo(스페인어) "크고 좋은 아파트"	brunette ("작고 귀여운 갈색 머리 소녀")

10) 우리는 이 논문에서 주변적 형태론에서 어휘가 제작되는 과정은 '구성(construction)'으로 구별한다.

11) Fradin과 Montermini(2009, 232)의 표를 우리의 논지에 맞게 수정·보완함.

평해를 드러내는 평가	politicard (부정적인 의미로 정 치인을 부를 때 사용 하는 말)	barcasse ¹²⁾ (“크고 낡아빠진 배”)	réformette (“작고 볼 것 없는 개혁”)
----------------	---	--	--------------------------------

평가 강조사 파생어가 구성될 때 위의 형판이 사용된다면 평가 강조사 파생어는 일반적인 파생어가 아닐 것이다. 반대어나 혼성어와 같은 문법 외 중심적 형태론의 어휘들도 아닐 것이다. 위의 형판 자체가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논거가 된다. 위의 표에서 ‘중립성’은 ‘크기가 크지도 작지도 않다’ 또는 ‘애정을 드러내지도 평해를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측정이나 주관적 인정이 아예 관여(pertinence)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의 형판에서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가 만나는 칸은 비어 있다. 그 칸에서는 어떤 평가도 관여되지 않기 에 그 칸은 평가 형태론 밖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칸은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 시스템 밖에 있는 공간이다. 한편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apartamentazo*와 같이 플러스 측정 평가와 플러스 주관적 인정 평가가 중첩되는 어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가’는 평가적 형태론의 형태소에만 관계되지 않는다.

- 14) Elle est grande.
- 15) Elle est petite.
- 16) Salaud!
- 17) Ma puce!

14)와 15)의 문장들에서 어휘 *grande*와 *petite*는 평가 형태소 없이 측정 평가를 표현한다. 16)과 17)에서 문장으로 사용된 어휘와 명사구 역시 평가 형태

12)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에 따르면 이 어휘는 19세기에 이탈리아어 *barcaccia*에서 차용한 것이다. 특이하다(idiosyncrasique) 할 수 있는 경우로 유사한 어휘가 관찰되지 않기에, 어휘는 존재하나 강조사가 프랑스어에 문법화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소 없이 폼페이와 애정을 드러낸다. 요컨대 인간은 주관적 인정과 객관적 측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존재자인데 그 평가의 언어적 표현은 평가 형태소에 의해서도 다른 언어적 방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평가 형태론에서는 정도(degré)와 상호성(interactionnalité)도 주요 논제가 된다. 평가는 플러스적인 극단과 마이너스적인 극단 그리고 그 양자 사이에서 정도가 관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극단도 정도의 극단을 말한다. 상호성이 주요 논제가 되는 이유는 평가 형태론의 어휘가 상황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이다. 평가 형태론은 평가 형태-화용론으로 확장된다. 물론 정도와 상호성도 형태소 외 다른 언어적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18) Ce café est très chaud!

19) Un petit café, s'il vous plaît!

예문 18)에서 chaud는 플러스적인 측정 평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très는 chaud가 표시하는 정도를 극단으로 올려서 최상급에 이르게 한다. 예문 19)에서 petit는 특정 상황 조건에서만 사용된다. 주문자와 주문을 받는 자가 친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다시 말해, 그 petit는 대화자가 그것의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20) Bellissime

21) Bisounette

같은 검토가 평가적 형태론에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20)의 예에 담겨있는 정도는 최상급이다. 21)의 예는 모든 대화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친밀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다음 예들에서 볼 수 있듯 부모가 자녀에게, 연인에게, 예외적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화용론적 측면에도 정도가 개입한다. 우리의 예에서는 ‘친밀성(proximité)의 정도’가 변수가 된다.

- 22) Bonne nuit, ma bisounette. (부모가 자녀에게)
 23) Je t'aime, ma bisounette. (연인에게)
 24) Merci, ma bisounette, pour ton aide. (질친에게)

정리하면, <표 1>의 형편이 보여준 형태미론적 시스템에 기반하여 구성된 평가 강조사 파생어에는 형태화용론적 사용 조건이 붙는다. 이를 우리는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도식화한다. 어휘 bisounette는 <표 2>의 도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태미론적 형편에서 구성되고, 형태화용론적 조건 속에서 발화된다. 평가적 형태론은 평가적 형태미론과 평가적 형태화용론으로 이루어진다.

<표 2>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bisounette

énonciation의 조건: 최상급의 친밀도

4. 평가적 형태론의 적용

1) 프랑스어의 경우

측정적 마이너스 강조사 접미사 et/ette에 대립하는 측정적 플러스 강조사 접미사는 프랑스어에 매우 드물다. <표 1>이 보이는 것처럼, barcasse에서와 같은 폼훼하는 측정적 플러스 강조 접미사 파생어는 있으나 각주 12)에서 말한 것처럼 해당 접미사가 기능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apartamentazo에서와 같이 애정을 드러내는 측정적 플러스 강조 접미사도 없다. 중립적인 측정적 플러스 강조 접두사 maxi에 대응하는 중립적인 측정적 플러스 강조 접미사 또한 없다.

반면에 주관적 플러스 강조 접두사는 여럿이다. Fradin과 Montermini (2009)를 참조하며 주관적 플러스 강조 접두사 파생어들을 분석해보자. 먼저 super가 포함된 어휘 supercarburant을 분석해 보자. 우리가 보기에 그 어휘의 형태미화용론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긍정적 평가	supercarburant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표 3〉이 알려주듯 super는 형태의미론적으로 객관적 평가에서 중립적이다. 반면에 주관적 평가에서 최상급으로 긍정적이다.¹³⁾ 그리고 발화할 때 형태화용론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없다. 이어서 super와 유사해 보이는 archi의 경우를 살펴보자. Super는 라틴어 어원 접두사이고 archi는 고대 그리스어 어원 접두사이다. 우리가 보기에 archi-content의 형태의미화용론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4〉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긍정적 평가	archi-content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¹⁴⁾

〈표 4〉는 archi-content의 형태의미화용론적 구조가 supercarburant의 그것과 같음을 알려준다.

Super, archi와 유사한 접두사로 hyper, ultra, hypo도 있다. Hyper-nerveux, ultra-libéral, hypo-allergique의 형태의미화용론적 구조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주관적 평가가 최상급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부정적이다. 쉽게 말해, “너무 극단적”이라는 의미를 준다.

〈표 5〉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부정적 평가	hyper-nerveux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13) ‘고급휘발유’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는 ‘sans plomb’ 또는 ‘super’이다.

14) 이음줄은 형태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사용할 경우는 언어적 관습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aigre-doux는 프랑스어 어휘이지만 이음줄이 있다. 요컨대 이음줄이, 해당 어휘가 아직 덜 어휘화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archi-content은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에 등재된 어휘이다.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부정적 평가	ultra-libéral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부정적 평가	hypo-allergique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반면에 macro는 méga, maxi와 함께 측정성을 갖는 평가 접두사이다. Macrosociologie, mégagraphie, maxibouteille 등이 해당 접두사들을 지닌 어휘이다. 예를 들어 macrosociologie의 형태의미화용론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표 6〉

	크기가 크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macrosociologie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Macro, méga, maxi가 플러스 방향으로 최상급의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Mini, micro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상급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접두사들이 들어간 어휘로는 minicassette, micromolécule이 있다. Minicassette의 형태의미화용론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표 7〉

	크기가 작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minicassette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측정적 마이너스 강조 접미사에 대해서도 논해보자.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유일한 해당 접미사는 et/ette이다. 이 접미사가 접목되는 어휘 범주로는 명사(ex. clochette), 형용사(gentillet), 동사(voleter)가 있다. Voleter의 경우 voler에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한 후 마치 요사(infixe)처럼 접목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어간 vol에 접미사 et가 접목된 후 어미 er가 접목된 것으로 분석한다. Nuagelet의 경우도 흥미롭다. Nuage에 et가 직접 접목되지 않고 et가 nuag(약

음 /s/ 탈락)에 접목된 후 nuage)에 et가 접목된 것으로 분석된다.

Fradin과 Montermini(2009)는 작용(opération) 개념을 도입하여 et/ette에 대해 논한다. 그 접미사를 작용자(opérateur)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작용자와 작용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적 힘(force)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구조적 언어학에 역학적(dynamique) 언어학을 더하는 일이다.¹⁵⁾ 작용에는 대상이 있는데, Fradin과 Montermini(2009)가 주장하는 작용 대상들이 언어 외적(extra-linguistique) 대상들이어서 저자들의 작용론은 형태화용론적 이론으로 이해된다. 저자들이 지목하는 대상 중 하나는 언어 외적 ‘지시대상(référent)’이다. 예를 들어, maisonette와 cigarette에서 ette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접목된 maison과 cigare가 가리키는 언어 외적 지시대상이라는 외연적 실체들에 연결되며 그것들의 ‘기준적’ 크기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우리는 앞서 maisonette와 cigarette와 같은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며 술어작용을 말하였는데, 말하자면 술어 ette가 작용하는 주어가 maison과 cigar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어간들이 가리키는 언어 외적 지시대상들의 기준적 크기라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예의 기준적 크기란 다음 아닌 원형적/전형적 크기(taille prototypique)일 것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Tapette와 touchette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석 가능하다. 동사 taper와 toucher의 어간으로 사용된 tap와 touch에 ette가 접목되어 파생된 그 어휘들도 술어작용의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ette는 작용자로서 그 두 어간이 가리키는 원형적/전형적 기준을 완화하여 예를 들어 tapette는 ‘간단히, 세지 않게, 강화하지 않으며’ 때리는 행위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원형적/전형적 기준은 문화적 기준이다. 따라서 평가 강조사 형태화용론을 언어문화론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다. 이 점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제시한 ‘왕고모’, ‘쇠기러기’와 같은 비평가적 강조사 파생어를 평가 형태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주기 때문

15) ‘역학적 언어학’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Milner(1989) 참조

이다. ‘왕고모’는 ‘큰 고모’가 아니다. ‘큰고모’처럼 인간관계 망 속에서, 거시적으로 말하면 문화적 인식 속에서,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시하는 어휘이다. 새로운 분석 틀 속에서 보면 우선 ‘왕고모’의 ‘왕’에 평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왕’은 문화적 인식 속에서 고모가 갖는 위치보다 높은 위치를 가리키는 작용자로 분석할 수 있다. ‘쇠기러기’ 역시 ‘작은 기러기’가 아니고 ‘쇠’에 평가성이 있다. 작용 결과 ‘쇠기러기’는 크기를 요인(facteur)으로 하는 기러기에 대한 문화적 인식 속에서 ‘기러기’가 갖는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갖는 기러기를 지시하는 어휘가 된다. 그 ‘쇠’도 ‘기러기’의 문화적 크기, 다시 말해 원형적/전형적 크기를 낮추는 작용자이다. 프랑스어 *basset*도 비슷한 경우이다. 그 어휘는 “다리가 짧은 남자”를 의미하는데, 남자의 다리 길이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상정되고 그 기준에 비해 다리 길이를 짧게 하는 작용과 관계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왕고모’나 ‘쇠기러기’와 달리 문화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위치가 고정된 사례가 아니다. 다리가 짧은 남자의 분류(classification)의 정도는 ‘왕고모’, ‘쇠기러기’의 분류 정도와 다른 것이다. 평가적 형태론에서 ‘정도’가 유의미한 요인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화자(locuteur)도 작용 대상이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25) *calculette*
- 26) *calculatrice*
- 27) *cousette*
- 28) *zappette*

25)의 어휘와 26)의 어휘는 모두 “계산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25)의 어휘에서 *ette*는 접미사로서 그 어휘를 사용하는 화자에 작용하는 작용자이고 그 작용의 결과 일차적 의미인 지시적(dénotatif) 의미에 이차적 의미인 애정적 함축(connotation affective)을 더 한다. *Calculette*는 화자가 어떤 계산기를 가깝게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된다. 달리 말해 예의 작용에서 작용자 *ette*는 화자에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화자와 계산기 간의 거리(distance)를 작게

한다. 이런 작용은 27), 28)의 어휘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Cousette는 “휴대용 작은 바느질 도구”를, zappette는 리모콘을 의미하는데 ette는 화자에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화자와 사용하는 도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한다.

Fradin과 Montermini(2009)가 제공한 작용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평가 형태론의 어휘가 구성되는 과정은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의 어휘가 형성되는 과정에 비해 복잡하다. 예를 들어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의 단어 calculatrice는 단순히 어간 형태 calcul과 접미 표현 형태 atrice(thème라고도 불리는 연결사(jonction) a와 접미사 trice)가 결합되며 “계산”이라는 의미와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파생어이다. 반면에 calculette의 구성은 위에서 보았듯 복잡하다. 다르게 말하면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의 calculatrice에 비해 calculette의 의미 구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이와 같은 평가적 형태론의 어휘는 구성상의 개별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어휘 bleuet가 상징적이다. Bleuet는 어간 bleu에 접미사 et가 접목되며 구성된 파생어인 평가적 형태론의 어휘이다. 이 어휘의 의미 구성은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 우리나라로 추론컨대 bleu의 지시대상을 et를 통해 작게 하면서 푸른색 계열에서 특정 정도를 가진 색을 얻고, 환유(métonymie)의 인접성(contiguïté) 원리에 따라 그 색을 가진 꽃(수레국화)으로 비유적 구성을 한 것 같다.

2)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평가 강조사 파생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근본적 이유는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어휘량이 매우 적기 때문일 것이다. 본격적 연구로는 구분관(1999), 이성하(2001) 등이 있다. 이성하가 밝히고 있듯 홍기문(1947), 이송녕(1961), 허웅(1975) 등에서는 한국어 지소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고, 양해승(2015)의 주관량 표현에 관한 학위논문의 일부에서 조명된 바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국어 평가 강조사 파생어들 중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강조사를 중심으로 모으고 몇 가지 경우를 추가하면 아래와

같다: 왕-가슴, 새-파랗다, 질-푸르다, 시-건방지다, 불-상놈, 날-강도, 된-더위, 한-걱정, 뒤-범벅, 짓-고생(이상 접두사 파생어), 돌-멩이, 장작-개비, 골-짜기, 귀-때기, 송-아지, 딸-내미, 염-생이(이상 접미사 파생어). 각 어휘는 대표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왕-가슴’은 ‘왕-만두’ 등 관련 어휘들을 대표한다.

위에서 우리가 예로 든 한국어 평가 강조 ‘접두사’ 파생어들의 그룹별 형태의미화용론적 형판들과 전체 형판은 다음과 같다.

〈표 8〉

	크기가 크다는 평가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왕-가슴	

	성질이 강하다는 평가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새-파랗다, 질-푸르다	

	성질이 강하다는 평가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뽀뽀를 드러내는 평가	시-건방지다, 불-상놈, 날-강도, 된-더위, 한-걱정, 뒤-범벅, 짓-고생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크기가 크다 성질이 강하다는 평가	크기가 작다 성질이 약하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왕가슴/새파랗다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뽀뽀를 드러내는 평가		Ø/불상놈, 시건방지다	

이번에는 한국어 평가 강조 ‘접미사’ 파생어의 형판들을 살펴보자:

〈표 9〉

	크기가 작다는 평가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돌멩이, 장작개비, 골짜기, 송아지	

	크기가 작다는 평가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딸내미, 엽생이(엄소 새끼)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평혜를 드러내는 평가	귀때기

énonciation의 조건: 없음

위의 분석에 두 가지 첨언이 필요하다. 하나는 ‘송아지’와 ‘엽생이’가 대조된다는 점이다. 양자는 주관적 평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중립적인데, 후자는 애정을 드러낸다. 다른 하나는 ‘송아지’도 ‘엽생이’도 ‘왕고모’처럼 문화적 관계망 속에서 특정 위치에 놓인 생명체를 지시하는 어휘라는 점이다 - ‘송아지’와 ‘엽생이’는 ‘자손’을 의미함. 달리 말해 접미사 ‘아지’와 ‘생이’는 문화적 관계망 속에서 ‘소’와 ‘염소’의 위치에 작용하여 낮은 위치를 가리키는 작용자이다.

우리가 예로 사용한 한국어 평가 강조 접미사 파생어들의 전체 형판은 다음과 같다:

〈표 10〉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크기가 크다는 평가	크기가 작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돌맹이, 장작개비, 골짜기, 송아지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딸내미, 엽생이
평혜를 드러내는 평가	귀때기		

우리가 예로 사용한 한국어 평가 강조 접두사 및 접미사 파생어들의 전체 형판은 다음과 같다:

〈표 11〉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크기가 크다는 평가/성질이 강하다는 평가	크기가 작다는 평가 /성질이 약하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왕가슴/새파랑다	돌맹이, 장작개비, 골짜기, 송아지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딸내미, 엄생이
핍해를 드러내는 평가	귀때기	Ø불상놈, 시건방지다	

이 형판을 아래에 수정하여 다시 제시한 프랑스어 평가 강조 접두사 및 접미사 파생어들의 전체 형판과 대조해 보자:

〈표 12〉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	크기가 크다는 평가	크기가 작다는 평가
중립적인 주관적 평가		maximanteau	balisette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	bisounette*		brunette
핍해를 드러내는 평가	politicard	barcasse	réformette

* énonciation의 조건: 최상급의 친밀도

두 형판의 대조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확인된다. 가능한 여덟 가지 조합 중에서 한국어는 다섯 가지 조합을 보여주는 데 비해 프랑스어는 일곱 가지 조합을 보여준다. 두 언어 모두에 없는 조합은 플러스 측정 평가와 플러스 주관적 인정 평가의 조합이다. 쉽게 말해, 크기가 크거나 성질이 강한 대상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는 주어지지 않는다. 프랑스어에서는 측정 평가와 무관하게 애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다. 한국어에서 애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오로지 평가 대상이 작게 측정되는 경우이다. 또 프랑스어에서는 크기가 작다고 평가한 대상에 대해 핍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두 언어의 조합 모두에서 유일하게 발화 조건이 설정된 조합은 프랑스어에서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와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의 조합’이었다. 한국어에서도 해당 조합에서 동일한 발화 조건

설정이 예측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해당 조합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다.

III. 결론

흔히 어휘 형태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고 문장 형식보다 작은 언어적 세계를 거시 통사적(macro-syntaxique) 세계라 하고 어휘 형태를 최대 단위로 하는 내부 세계를 미시 통사적(micro-syntaxique) 세계라 한다. 강조는 거시 통사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미시 통사적 현상이기도 하다. 강조사는 미시 통사적 세계에서 다른 요소와 관계하며 강조 현상의 원인이 된다. 강조사는, 인간은 양적, 질적 판단을 하는 존재자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언어적으로 보여준다. 강조사에는 강조 접두사, 강조 접미사가 있고 플러스 강조사, 마이너스 강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강조사가 플러스 강조사보다 발달해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플러스 강조사는 어떤 요소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 강조사는 어떤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증감되는 요소에는 언어 일반적으로 양, 질, 구체성, 정확성 등이 있는데, 우리의 연구에서는 프랑스어 강조사의 경우 양이 확인되었고, 한국어 강조사의 경우 양과 성질이 확인되었다. 강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조 행위는 강조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강조 작용의 결과가 강조사에 의한 강조인 셈이다. 강조 작용은 강조사가 작용자로서 수행한다. 그리고 강조 작용은 강조의 대상을 갖는다. 강조 대상은 강조할 수 있는 것(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고 의미적 제약을 받기도 한다. 강조사가 접목되는 어간의 어휘 범주는 프랑스어의 경우 명사, 형용사, 동사이고, 한국어의 경우 명사, 형용사이다. 어간과 강조사 사이에 논리적 술어작용이 어휘 구성 과정에서 개입된다고 가정되는데, 논리적 술어작용론을 역학적 형태론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보면 논리적 술어는 작용자로서 어간이 가리키는 언어 외적 지시대상이나 상황 속 화자에 작용하여 어떤 요소를 늘이거나 줄인다. 강조사는 언

어 밖 대상에 작용하는 형태이미화용론적 장치인 것이다. 작용자로서 강조사에 의해 증감되는 언어 외적 지시대상은 언어문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시스템 속에서 원형적/전형적인 것이고, 상황 속 화자에서 증대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상황 속 화자가 대하는 사물에 대한 애정이나 호의(결과적으로는 화자와 사물 사이의 거리)이다. 우리는 전자의 강조사를 객관적 평가 강조사로 후자의 강조사를 주관적 평가 강조사로 부른다.

현대언어학의 형태론은 세분되었다. 문법 내 형태론과 문법 외 형태론으로 구분되고 각 형태론은 다시 중심적 형태론과 주변적 형태론으로 나뉜다. 우리의 논제인 객관적/주관적 강조사가 접목되어 도출되는 파생어들은 문법 내 주변적 형태론인 평가적 형태론에서 구성되고 분석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평가 강조사 파생어는 문법 내 형태론의 일반 파생어, 합성어와 달리 어휘가 구성되는 과정이 형태이미적으로 단순하지 않다. 평가 강조사 파생어가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은 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형태이미론적 형편과 형태화용론적 조건의 합인 형태이미화용론적 구조가 구성 과정에서 규칙적 기반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은 고유하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은 어휘가 창작되는 문법 외 형태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문법 외 형태론과 관련 있는 창작의 의도, 섬세하지 못한 조작과 같은 어휘 창작 과정상의 특성도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 과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법 내 중심적 형태론의 파생어들과 달리 평가 강조사 파생어는 형태와 별도로 의미 구성이 진행되며 의미가 추가적 방식으로 구성되지도 않는다. 구성된 파생어가 다시 어간이 되어 새로운 파생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는 *volet*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volet*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태이미적으로 복잡한 구성 과정과 그 결과인 낮은 생산성, 형태 구성 과정과 병행되지 않는 의미 구성 과정, 추가적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의미 구성이 ‘주변성’을 이룬다. *Bleuet*와 같은 평가 강조사 파생어의 불규칙적이고 개별적인 구성 방식도 그 주변성에 일조한다.

평가적 형태론의 틀 속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평가 파생어들을 분석한

결과, 프랑스어에서 중립적인 객관적 평가와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가 중첩되는 조합에만 ‘최상급의 친밀도’ 발화 조건이 설정된다. 한국어에서도 해당 조합에서 동일한 발화 조건 설정이 예측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해당 조합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다. 발화 조건은 기본값이 ‘없음’이고 매우 예외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평가 파생어들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해당 파생어들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언어의 평가 파생어들이 구성되는 기반인 형판들을 대조한 결과 측정 평가와 주관적 인정 평가의 여덟 가지 조합 중에서 한국어는 다섯 가지 조합을 보여주는 데 비해 프랑스어는 일곱 가지 조합을 보였다. 프랑스어가 더 다양하게 중첩되는 것이다. 두 언어 모두에 없는 조합은 플러스 측정 평가와 플러스 주관적 인정 평가의 조합이다. 쉽게 말해, 크기가 크거나 성질이 강한 대상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는 평가는 주어지지 않는다. 프랑스어에서는 측정 평가과 무관하게 애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다. 한국어에서 애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오로지 평가 대상이 작게 측정되는 경우이다. 또 프랑스어에서는 크기가 작다고 평가한 대상에 대해 폄훼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프랑스어 평가 접두사는 최상급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보이거나 최상급이 아닌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보인다. 반면에 한국어 평가 접두사는 최상급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만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프랑스어 강조사 파생어, 한국어 강조사 파생어, 평가적 형태론, 문법 내 형태론, 문법 외 형태론, 형태의미화용론

[참고문헌]

- 구본관 (1999).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34: 109-141,
- 양혜승 (2015).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성하 (2001). 한국어 지소사의 문법화. 언어와 언어학. 133-148.
- 이승녕 (1961). 국어조어론고. 서울: 을유문화사.
- 하웅 (1975).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 홍기문 (1947). 조선문법연구. 고영근 · 하동호 편 한국역대문법대계. 1-39.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bonell J. G. & P. J. Hayes (1983). Recovery strategies for parsing extragrammatical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9. 3-4 : 123-146.
- Dressler, W. U. & L. M. Barbaresi (1994). *Morphopragmatics. Diminutives and Intensifiers in Italian, German, and Other Languages*. Berlin & New York : Mouton de Gruyter.
- Dressler, W. U. (2000). Extragrammatical vs. marginal morphology in Doleschal U. & A. Thornton (eds.) *Marginal and Extragrammatical Morphology*. München : Lincom Europa.
- Dressler, W. U. & M. Kilani-Schoch (2005). *Morphologie naturelle et flexion du verbe français*.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Fradin, B., Montermini, F. & M. Plénat (2009). Morphologie grammaticale et extragrammaticale in *Aperçus de morphologie du français* éd. par Bernard, F., Kerleroux, F. & M. Plénat,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21-45.
- Fradin, B. & F. Montermini (2009). La morphologie évaluative. in *Aperçus de morphologie du français* éd. par Bernard, F., Kerleroux, F. & M. Plénat,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231-266.
- Greenberg, J. H. (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Greenberg J. (eds.) *Universals of Language*. MIT Press. 58-90.
- Haspelmath, M. (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 Arnold.
- Jones, M. A. (1996). *Foundations of French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fkowitz, N. & S. Weinberger (1991). Métathèse au premier branchement et paramétrisation dans les jeux de langage : le cas de verlan. *Cahiers de*

grammaire. 16. 103-117.

Mel'čuk (1993-1997).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5 vo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CNRS Editions.

Méla, V. (1991). Le verlan ou le langage du miroir. *Langages*. 101 : 73-74.

Milner, J.-Cl. (1989). Introduction à une science du langage. Paris : Seuil.

Østby, K. A. (2001). Phonologie du verlan et théorie de l'optimalité. Oslo : Klassik og romansk institut. Universitetet i Oslo.

Plénat, M. (1995). Une approche prosodique de la morphologie du verlan. *Lingua*. 95. 1. 97-129.

Riegel, M., Pellat, J.-Ch. & R. Rioul (1994).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1er édition).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Spitzer, L. (1961). *Stilstudien*. München. Hueber.

Zwicky, A. M. & G. K. Pullum (1987). Plain Morphology and Expressive Morphology. *BLS*. 13 : 330-340.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강조사 파생어를 평가적 형태론의 틀 안에서 분석한다. 평가는 객관적 평가(크기나 성질의 측정)와 주관적 평가(애정이나 폼페이와 같은 주관적 인정)로 나뉜다. 평가적 강조사는 어간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의 문화적 기준에 작용하거나, 상황에서 화자에게 작용하여 화자와 지시대상 간의 거리를 긍정적/부정적으로 강조한다. 평가적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 과정에 규칙성을 제공하는 형태의미론적 형판에서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여덟 가지 경우로 중첩된다. 이 형판에 형태화용론적 조건이 동반된다. 프랑스어는 객관적 측정 평가와 주관적 인정 평가의 일곱 가지 조합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어는 다섯 가지 조합을 나타낸다. 두 언어 모두에서 결여된 조합은 긍정적 측정 평가와 긍정적 주관적 인정 평가의 조합이다. 프랑스어에서는 측정 평가와 관계없이 애정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평가 대상이 작게 측정될 때만 애정이 표현된다. 프랑스어에서는 작게 평가된 대상에 대해 폼페이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프랑스어의 평가 접두사는 최상급 긍정/부정 평가 또는 비최상급 긍정/부정 평가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어의 평가 접두사는 최상급 긍정/부정 평가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적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은 형태의미화용론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고유하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은 어휘가 창조되는 문법 외 형태론과는 거리가 있다. 문법 외 형태론과 관련 있는 어휘 창조 과정의 특성, 예를 들어 창조 의도와 조작의 섬세함/섬세하지 못함은 평가적 강조사 파생어의 구성 과정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중심적 문법 내 형태론의 파생어와 달리, 평가적 강조사 파생어는 형식적 구성과 별도로 의미적 구성을 진행하며, 의미가 추가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형태의미론과 관련된 복잡한 구성 과정과 그로 인한 낮은 생산성, 형식적 구성 과정과 병행하지 않는 의미적 구성 과정, 비추가 방식의 의미적 구성은 평가적 강조사 파생어

의 주변성을 구성한다. 평가적 강조사 파생어의 형태화용론적 조건은 기본값이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우 예외적으로만 설정된다.

[Abstract]

A Study on Intensified Derivatives

Leem, Jai-Ho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nalyze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in French and Korean within the framework of evaluative morphology. Evaluation is divided into objective evaluation (measurement of size or quality) and subjective evaluation (subjective recognition such as affection and disparagement). Evaluative intensifiers act on the cultural standards of the referent indicated by the stem as operators, or act on the speaker in the context, ultimately intensifying the distance between the speaker and the referent in a positive or negative manner.

In the morphosemantic template that provides regularity to the construction process of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objective evaluation and subjective evaluation overlap in eight cases, and this template is accompanied by morphopragmatic utterance conditions. As the contrast in the template clearly shows, the construction processes of intensified derivatives in French and Korean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ench demonstrates seven combinations of measurement evaluation and subjective recognition evaluation, while Korean shows five combinations. The combination that is absent in both languages is the combination of positive measurement evaluation and positive subjective recognition evaluation. In French, there are cases where affection is expressed regardless of measurement evaluation, but this is not present in Korean. Affection in Korean is expressed only when the evaluation target is measured as small. Additionally, in French, there are cases where disparagement is expressed for a target evaluated as small, which is not found in Korean. French evaluative prefixes show either superlative positive/negative evaluation or non-superlative positive/negative evaluation. In contrast, Korean evaluative prefixes seem to show only superlative positive/negative evaluation. The construction of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is uniquely regular and predictable, as the morphosemantic-pragmatic structure is used as a basi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This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are distant from the extra-grammatical morphology where lexical creation occu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xical creation process related to extra-grammatical morphology, such as the intention of creation and crude manipulation, do not appear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Unlike derivatives in central grammatical morphology,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proceed with semantic construction separately from the formal construction and are not constructed in an additive mann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derived word becomes the stem again and is used in a new derivation process. The complex construction process in terms of morphosemantics and the resulting low productivity, the semantic construction process that does not parallel the formal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non-additive manner of semantic construction constitute the marginality of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The morphopragmatic utterance condition of evaluative intensified derivatives appears to have a default value of “none” and is set only very exceptionally.

【Keywords】 Intensified Derivatives in French, Intensified Derivatives in Korean, Evaluative Morphology, Grammatical Morphology, Extragrammatical Morphology, Morphopragmatics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20일 / 논문심사일: 2024년 10월 24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6일

【저자연락처】 jhl@yonsei.ac.kr